

"와~이거 정말 책 맞아?"

삼성어린이박물관, 세계서 가장 큰 책 선보여

펼쳐 놓은 길이만 무려 4미터가 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등장해 화제다.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 전시중인 '부탄'이 바로 그것.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 책은 전자책이 아닌 종이원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달에 한 장씩 넘겨보는 초대형 사진집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삼성어린이박물관에 가면 100여 개 이상의 체험적 전시물 가운데 유독 눈으로만 보는 이색 전시물을 볼 수 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 이야기에서나 있을 법한 큰 책이 1층 로비에 자리잡고 있다. 바로 상설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13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부탄'이다.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부탄, 히말라야 마지막 왕국의 사진 오디세이' (Bhutan: A Visual Odyssey Across the Kingdom)이다.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첨단기술과 장비를 지원받아서 미국 MIT 대학 교수인 마이클 홀리(Michael Hawley)가 만들었다.

이 책은 가로 2.1m 세로 1.5m 크기에 무게만 50kg이



나 된다. 책 한권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종이만도 축구장을 뒤덮을 정도며, 사용된 잉크의 양은 약 81에 달한다. 학생들과 4차례에 걸친 현지탐사 끝에 완성한 이 책에는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리러'로 불리는 부탄의 숨막히는 풍경사진들이 아코디언 스타일의 제책 방식을 적용하여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부탄의 모습을 세계에서 가장 큰 책에 담았다는 것이 보는 이들에게 흥미를 더해준다.

'부탄'은 총 500부가 제작되었는데 삼성어린이박물관에 전시되는 책은 그 중 34번째 책으로 2003년 1월 14일 제작되었다. 작고한 켈러(Kelleher, 전 주한 Bank of America 지점장)씨에게 부인인 크리스틴 호 켈러(Christine Ho Kelleher) 여사가 2003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 준 책이라고 한다. 이것을 켈러(Kelleher) 여사가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삼성문화재단에 이 책을 기부하면서 국내에서도 직접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삼성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2007년 신규전시인 '꼬마세계시민'과 맥락적 흐름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설로 이 책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측은 이 책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특수 케이스를 제작하였으며, 한 달에 한 장씩 이 거대한 책장을 넘기기로 했다.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인 '꼬마세계시민' 전시

어쩌면 “고작 책 한권 구경하러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부탄’ 전시에 못지 않은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4층에는 2007년 신규 전시인 ‘꼬마세계시민’ (Global Citizen: We are Peacemakers!)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동 스스로 적극적인 발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있다. 어린이들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과 친구가 되어 나, 우리, 세계 그리고 자연과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과 사람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간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찾는 체험을 하게 된다.

‘모자이크 얼굴(Mosaic Face)’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찰칵 촬영한 후 멀리 물러서서 모니터를 통해 본다.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면서 하나의 내 얼굴로 보이는 과정을 통해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는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된다.

‘어울림의 방(Getting Along Kaleidoscope)’은 혼자 또는 함께 어울려 들어가는 거울의 방으로 각도를 달리 한 거울의 면들을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일체감

을 느낄 수 있다. 대형 만화경 속으로 들어가 형형색색의 색과 모양을 즐기면서 조화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전시는 아동들에게 편견없는 진실된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속으로의 여행 ‘옛 미술 갤러리’

박물관 2층에 마련된 ‘옛 미술 갤러리’는 우리의 전통 미술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사상, 문화적 감수성을 즐거운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먼저 ‘쓱쓱! 손가락 그림’은 윤제홍(尹濟弘, 1764~?)의 지두화(指頭畵) 작품 1점을 소개하고 42인치 대형 스크린에 어린이들이 직접 터치 비전을 활용해 지두화 그리기를 해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전시물이다. 나무, 집, 돌, 사람, 절벽 등 기본적인 작품 소재를 손가락으로 끌어 놓기, 먹의 진하기와 선의 굵기 선택하기 등의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후 출력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옛이야기 옛그림’은 조선말기 회화 5점을 엄선하여 잔잔한 움직임이 있는 영상동화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전시이다. 장승업, 유숙 등의 작품에 담긴 뜻과 선비들의 문화를 터치 스크린을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